

세계적 양질의 환상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팩트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반복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당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선취골 박원재



두번째 골 고기구



썩기골 이광재

## ‘포항의 기적’ 초읽기

K-리그 5위 → 6강 PO → 준 PO → PO ‘도약’

챔프 1차전 리그 1위 성남 3-1 격파 ‘먼저 1승’

기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스틸야드의 전사들이 녹색 그라운드의 왕좌를 사실상 접수했다.

마흔 살의 젊은 브라질 사령탑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형 삼바군단’ 포항 스틸러스는 4일 포항 스틸야드 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삼성 하우젠 2007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가을 잔치의 영웅’ 박원재가 친금같은 선제골을 터트리며 후반 교체 멤버 고기구, 이광재가 연달아 득점포를 쏘아올려 장하영이 한 골을 따라 붙은 정규리그 1위 성남 일화를 3-1로 격파했다.

정규리그 5위로 6강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서 경남FC, 울산 현대, 수원 삼성을 연파하고 올라온 포항은 11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2차전에서 한 골 차로 패하더라도 우승컵을 들이올

릴 수 있는 절대 우위를 점했다.

1986, 1988, 1992년 우승팀으로 프로 원년 멤버인 포항은 통산 네 번째 우승 별을 가슴팍에 반쯤 새겨놓았고 12년 전인 1995년 성남 전신인 일화에 당했던 챔피언결정전 패배를 깨끗이 설욕했다.

반면 8번째 우승을 노리는 자전 챔피언 성남은 정규리그에서 고공비행으로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도 한해 농사를 쓸쓸히 빈손으로 마무리해야 할 위기에 내몰렸다.

이날 포항의 선제골은 플레이오프 사나이 박원재의 발끝에서 터졌다. 아무도 그의 득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파바레즈가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프리킥을 감아올렸는데 수비수에 스친 뒤 골대를 맞고 나왔다.

성남 수비진이 겨우 가슴을 쓸어내리려던 순간 골지역 왼쪽에 도사리고 있던 박원재

의 왼발이 불을 뿜었다.

정확히 왼발 인스텝에 걸린 슈트는 성남 골문 오른쪽 상단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후반에도 포항의 쇼는 계속됐다.

파리아스 감독이 ‘족집게 과의’식으로 교체한 고기구와 이광재가 연달아 골 퍼레이드를 펼친 것.

후반 28분 박원재의 크로스를 고기구가 방향을 돌려놓는 헤딩슛으로 연결, 오른쪽 하단 골망을 세차게 흔들었다.

이어 1분 뒤 고기구의 헤딩슛이 다시 크로스바를 맞고 나오자 ‘특급 조커’ 이광재가 리바운드 볼을 오른발로 마무리해 세 번째 골을 뽑아냈다.

성남은 후반 46분 왼쪽 풀백 장하영의 중거리포로 한 골을 따라붙는 데 그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일 오후 포항 스틸야드 전용구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7 포항 스틸러스와 성남 일화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성남을 3-1로 물리친 포항선수들이 관중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태환 3관왕 ‘미소’

첫날 400m 금 이어 200·1,500m 우승

FINA 경영월드컵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2007 국제수영연맹(FINA) 경영월드컵에서 출전한 세 종목 석권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지난 3일(한국시간) 오후 호주 시드니의 올림픽파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3차 시리즈 둘째 날 남자 자유형 200m와 1,500m를 잇따라 휩쓸어 전날 주종목인 400m 우승에 이어 3관왕으로 빛났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 달 중순 전국체전을 마친 뒤 연습을 거의 못해 전지훈련을 겸해 참가한 대회에서 건재를 과시해 내년 베이징올림픽 메달 획득 전망을 밝혔다.

박태환은 이날 자유형 200m에서 175m

지점을 통과한 뒤 역전극을 벌이며 1분43초38의 기록으로 그랜트 브리츠(1분44초57·호주)를 제치고 우승했다.

2005년 11월 경영월드컵 때의 1분45초26보다 1.88초나 빠른 자신의 최고 기록으로 올해 쇼트코스(25m)에서 세계 3위에 해당한다.

50분 뒤 펼쳐진 1,500m 결승에서도 그

랜트 해켓(호주) 등 경쟁자들이 불참한 덕분에 가볍게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은 4번 레인에서 초반부터 독주를 펼친 끝에 14분49초94에 물살을 갈라 2위 앤드루 톰슨(15분01초76·호주)을 11초82나 앞서 여유있게 우승했다.

하지만 지구력 훈련이 부족한 탓에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세계선수권에서 기록한 14분33초28보다 16초66 뒤져 아쉬움을 남겼다.

박태환은 13~1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벌어질 경영월드컵 5차 시리즈에서 다시 메달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이영표-이동국 맞대결 13분 ‘무승부’

영표 폴타임 출전 ‘육탄방어’ 선전

동국 후반 투입-공격포인트 없어

이영표(30·토트넘)가 이동국(28·미들즈브러)과 첫 그라운드 대결을 펼쳤지만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영표는 4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끝난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12라운드 미들즈브러와 원정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선발출전, 90분 풀타임을 뛰면서 1-1 무승부를 지켜냈다.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대결로 눈길을 끈 이날 경기에서 미들즈브러의 이동국은 후반 32분 교체투입돼 이영표와 함께 13분 정도 그라운드를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신임 후안데 라소스 감독 체제에서 두 경기 연속 선발출전한 이영표는 무리한 공격 부담보다는 안정된 수비에 치중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갔다.

이영표는 전반 26분 미들즈브러의 공격수 제레미 알리아디에르의 강한 슈트를 ‘육탄방어’로 막아내고 전반 31분에는 측면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

토트넘은 전반 35분 대런 벤틀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한 번에 찢러준 패스를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강한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터트리며 앞서나갔다.

반격에 나선 미들즈브러는 후반 7분 루크

영의 강력한 중거리포가 토트넘의 왼쪽 골대 구역에 꽂히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미들즈브러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후반 32분 알리아디에르 대신 이동국을 투입, 해결사 역할을 부여했지만 이영표를 상대로 강한 태클을 가해 옐로카드를 받는 등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한편 ‘스나이퍼’ 설기현(28·풀럼)은 이날 친정팀 레딩과 홈 경기에 결장했지만 풀럼은 연속골이 작렬하면서 3-1 승리를 거두고 9경기 연속무승(6무3패)의 사슬을 끊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 아시안컵 ‘음주 파문’ 진정 국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이동국 음주 우리 팀과는 무관”

토트넘 이영표

미들즈브러 사우스게이트 감독

“음주 사건이 지금까지 보여진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고 믿어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이영표(30·토트넘)가 이운재(34·수원) 등 동료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아시안컵 축구대회 음주 파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영표는 4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미들즈브러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러와 원정 경기에서 출전, 이동국(28·미들즈브러)과 맞대결을 벌인 뒤 구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대표팀 음주 파문에 대해 물어보자 “이번 사건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두 성실한 선수들이기에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표는 이어 “어떤 사건이 터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것이다. 난 누구를 비판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없지만 만약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곤경에 처한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내보냈다.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가레스 사우스게이트(37) 감독은 4일(한국시간) 이동국이 연루된 아시안컵 축구 음주파문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일과 미들즈브러 팀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까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날 이영표가 소속된 토트넘과 홈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한 뒤 인터뷰에서 “이동국이 연루된 음주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 우리도 이동국이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이 터져 이동국 스스로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국이 대표 선수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팀과 관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이어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클럽 경기나 팀을 위해 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음주 파문으로 이동국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희석이 아닌지?”…KIA 조범현 감독 안도의 한숨

“최희석이 아닌지?”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가을훈련을 지휘중인 조범현 선임 KIA타이거즈 감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경찰이 적발한 가짜 유학 서류를 위조한 병역비리 혐의자 가운데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 그것도 해외파 출신으로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대회에 출전했다는 점이 부각됐고, 4강 진출 공로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점도 전절히(?) 결투어였다. 당연히 최희석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 감독은 지난 3일 구단측에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다행히 최희석은 아니었다. 최희석은 고려대 시절 유

가짜 유학서류 병역비리 관련자

최희석과 조건 비슷해 한때 긴장

학 형식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확실한 유학생 신분이었다는 것.

지난해 WBC 4강 공로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최희석은 현재 광주 31사단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다.

조 감독이 이처럼 최희석에 대해 민감한 것은 그가 내년 시즌 팀 전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만일 최희석이 병역 비리로 출장하지 못할 경우 KIA로선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최희석은 2007시즌 4번타자와 5번타자로 번갈아 기용됐지만, 조 감독은 일찌감치 그를 내년 시즌 불발이 4번타자로 낙점한 상태다.

최희석은 내년 시즌 KIA타선을 책임져야 할 대들보인 것이다.

조 감독은 최희석이 30홈런, 100타점만 기록한다면 무난히 4강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감독은 “최희석의 활약여부에 따라 팀 타선의 안정감이 결정날 것”이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확인한 건데, 최희석은 아니라고 하니 천만다행이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